

1468조 가계부채... 놔두면 '경제뇌관' 조이면 '소비위축'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3) 김동연 경제팀의 딜레마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율 160% 금융자산 부채 비율 46%로 올라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 2배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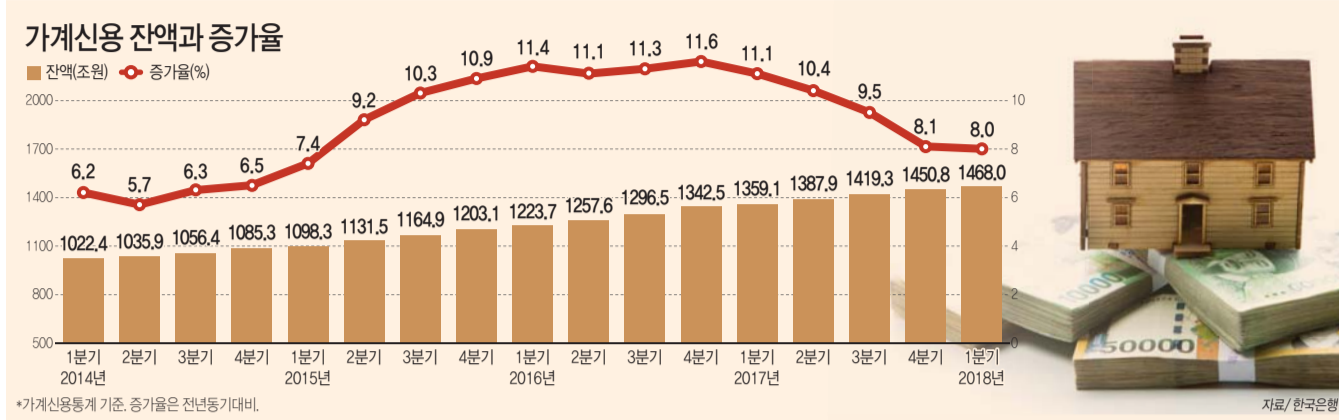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느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경기가 좋아 빚만큼 소득도 늘어난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빚만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30%대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60%까지 치솟았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마냥 조이자고 나설 수도 없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고, 부채를 디딤돌 삼아 뛰어버린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1468조 가계부채, 놔두면 경제뇌관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14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0~2014년 중 분기 평균인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과파르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질도 나빠졌단 얘기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분기 132.7%에서 2015년 3분기 140.2%, 2015년 3분기 150.5%, 2018년 1분기 160.1%로 뛰었다.

금융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분기 43.9%에서 2016년 1분기 44.6%, 2018년 1분기 46.0%로 높아졌다.

최근 몇 년 가계부채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더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9.

5%, 2017년 4분기 10.8%, 2018년 1분기 11.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아도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역으로 우량 차주가 왜 신용대출을 늘리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이거나 영업직 및 전문직에 종사해 30~40대 상용근로자 대비 미래 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

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해 '핀셋'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경착륙엔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해서 마냥 조이기만 할 수도 없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가 소비

위축에 침체로 갈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강력한 총량규제가 아닌 '연착륙'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금리인상도 가계부채 연착륙에 걸림돌이다. 오른 대출금리에 늘어난 이자부담은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한다. 특히 취약차주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은 그대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 이상인 위험가구의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의 11.6%다. 이들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7년 총 금융부채의 21.2%에 달한다.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기준 부채가구의 3.1%다. 대출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3.1%에서 각각 3.5%, 4.2%로 증가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상승시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저소득층인 소득 2~3분위 부채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회사채 발행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들

알고보니 투자재원 아닌 '빚 상환자금'

6월 회사채 수요예측 미달액 '0원'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자금조달 투자 저조에 내수부진 장기화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발행물량도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과 차환 용도의 회사채 발행이라는 점에서 고용 확대 등 거시경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6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1조5600억원이었다. 미달액(수요예측액-밴드포함액) '0'원으로 미달률은 0%를 기록했다.

초과액(밴드포함액-수요예측액)은 4조630억원에 달했다. 초과율은 260.4%다.

발행 규모는 4~5월 대비 감소했으나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발행시장 강세가 지속됐다.

등급별로 AA급에서 초과율은 265.6%로 1~5월 평균 수준(268.9%)을 유지했다. 특히 신세계는 모집액 대비 6배 이상의 오버부킹을 기록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고, 2년 만에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 포스코는 모집액 대비 5배 이상의 오버부킹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다.

A급에서는 초과율 237.5%로 1~5월 평균(283.7%) 대비 하락했으나, 높은 수준의 초과율로 발행을 이어갔다. BBB급에서는 초과율 247.1%로 1~5월 평균(227.4%) 대비 상승했다. 특히 한화건설이 BBB급을 극복하고 수요예측에 성공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현황 (2018.06.01~2018.06.30)>

종목명	신용등급	수요예측일	수요예측	발행확정
맥쿼리인프라2-1	AA0	2018-06-01	1,000	1,000
맥쿼리인프라2-2	AA0	2018-06-01	1,000	1,000
KB증권35	AA0	2018-06-04	2,500	2,500
한화건설96	BBB+	2018-06-05	500	740
현대다이모스38-1	A+	2018-06-05	700	700
현대다이모스38-2	A+	2018-06-05	300	300
오케이캐피탈277	BBB+	2018-06-19	200	330
사조산업51-1	A-	2018-06-21	200	200
사조산업51-2	A-	2018-06-21	100	200
S-Oil53-1	AA+	2018-06-25	1,000	1,100
S-Oil53-2	AA+	2018-06-25	1,000	1,100
S-Oil53-3	AA+	2018-06-25	500	800
휴비스16	A-	2018-06-26	300	500
롯데하이마트6	AA-	2018-06-27	1,200	1,800
다우기술2	A0	2018-06-28	800	1,500
신세계133-1	AA0	2018-06-28	300	300
신세계133-2	AA0	2018-06-28	1,000	1,800
포스코308-1	AA+	2018-06-27	1,000	1,500
포스코308-2	AA+	2018-06-27	2,000	3,500

/자료=Freebo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투자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는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기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인 자금 조달로 풀이된다. 매년 하반기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을 깨달은 기업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무역 전쟁 이슈 등을 우려해 상반기에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다.

실제 2018년 들어 조달목적 비중은 변했다. 운영목적 발행 비중(5월 말 기준 39%)은 줄고 차환목적 발행 비중(47.9%)은 증가하고 있다. 4년 만이다. 이는 발행사들의 선발행 수요는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고, 차환에만 대응하는 발행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 증가율이 0.2%로 전월(3%)보다 큰 폭으로 꺾인 데다 운송장비 투자 증가율이 11% 감소한 탓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2015년 3~5월 이후 3년 만이다. /김문호 기자 kmh@

中 더블스타서 6463억 납입완료 금호타이어, R&D·영업망 강화

더블스타, 금타 지분 45% 보유 채권단 지분을 23.1%로 내려가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 유치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드라이브를 건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4월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더블스타는 6일 제3차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금 6463억원을 금호타이어에 납입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1억2927만 신주를 인수해 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이전까지 42%를 보유했던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23.1%로 내려갔다.

또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더블스타 차이원철 회장과 장원화 CFO를 기타 비상무이사(비상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블스타가 중국 지리자동차와 볼보의 사례와 같은 독립경영을 보장한 만큼 금호타이어는 현 체제 그대로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사외이사로 채양기 전 현대자동차 경영기획담당 사장,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최흥업 조선대 교수, 김종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 4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의 등기이사는 종전 5명에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9명이 되었다.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은 "금호타이어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더블스타와 향후 연구개발, 경영, 영업 등 시너지를 높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지난 해부터 진

행해왔던 매각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본격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와 함께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10위권 진입'이라는 성장 로드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투입된 자금을 고스란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국내 및 해외공장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며 영업 및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승용차용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더블스타로 나누어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더블스타의 중국 내 영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국 내 더블스타의 대리점 숫자는 4500개로 금호타이어의 1400개 국내 대리점보다 훨씬 앞선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공장 시설을 개선하여 가동률을 높인 다음 더블스타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중국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하여 실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